
第12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保健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2月15日(木) 午後2時

場所 保健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1年度江南病院業務計劃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2001年度江南病院業務計劃報告의件 ... 2面

(15時 02分 開議)

○委員長 李喆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오늘 뜻하지 않은 눈사태로 경보까지 나와서 온 시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역이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을 우선 여러 관계공무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權宇 江南病院長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이 되는 신사년을 맞이해서 더 불어 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복지구현

을 목표로 시민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는 한편 미래지향적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병원 특성에 적합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장비의 개선과 현대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개선은 물론 경영합리화도 추구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 금년도 업무보고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해 보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001年度江南病院業務計劃報告의件

(15時 04分)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강남병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金權宇 江南病院長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 金權宇;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江南病院長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에서도 존경하는 李喆鎬 保健社會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강남병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해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각종 시책변화와 이에 따른 갈등으로 시련과 고난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본연의 공공의료 목적수행을 위하여 저희가 매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해부터 병원제도 의료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올해를 강남병원이 새롭게 변모하는 도약의 해로 정하고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올 하반기의 이러한 업무보고시에는 월등히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고드릴 것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무쪼록 지켜봐 주시면서 혹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변함없는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병원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幹部紹介: 管理理事 李奭遠, 診療理事 兪炳旭, 企劃院務部長 朴世雄, 總務部長 金南薰, 看護部長 李在善, 中溪老人福祉館長 金貞均)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의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1년도 재정운영계획, 2001년도 분야별 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

(報告)

江南病院 業務計劃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대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께서 직접 얘기가 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될 테니까 웬만한 데는 오늘 휴회를 하고 또 진행하는 데도 가급적 빨리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라고 했는데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즉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강남병원은 직원들이 나가서 눈을 치울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것을 연장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늘 간단하게 요소요소 이렇게 해서 끝마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院長 金權宇;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금년도 강남병원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질의가 길어질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高明坤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高明坤 委員; 高明坤委員입니다.

강남병원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좀전에 비해서 많

이 진일보한 면이 있어 본위원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계획을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올해 강남병원이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노후기종하고 신규기종 대체로 약 26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외래수익분야를 묻고 싶는데요. 전체 입원수익과 부대수익은 거의 100% 선에 가까운데 외래수익분야가 작년도에 보면 외래환자 목표가 5만 1,718명인데 실적은 6만 4,323명으로 무려 1만 3,000명이 늘어났는데 실적도 사실은 전년대비 추정손익계산서 15페이지 볼 것 같으면 2000년도 예산은 외래수익 예산이 11억 8,1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2억 3,730만원이었거든요. 무려 약 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2001년도 예산에서는 11억만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院長 金權宇; 질문을 잘.....

○高明坤 委員; 그러니까 외래수익환자가 전년도 계획대비 1만 3,000명이 늘어나고 실제 수입도 한 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올해 추정손익계산서에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금액이 11억으로 일단 줄어있거든요.

○院長 金權宇; 처음에 7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高明坤 委員; 네, 외래수익분야요.

○院長 金權宇; 실적이.....

○高明坤 委員;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院長 金權宇; 네, 죄송합니다.

○高明坤 委員; 외래수익분야가 12억 3,730만원 실적이 돼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준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2000년도 예산에는 원래 11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5억 정도가 실적이 증가되고 원래 외래환자수도 5만 1,718명이었는데 실제로는 6만 4,323명의 외래환자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목표에 가서는 외래수익을 기타 의료수익 포함해서 13억 9,000을 잡아서 88%를 증가시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냐 이거죠.

○院長 金權宇; 죄송합니다. 외래수익이 적어진 것은 의약분업에 의해서 사실은 그 동안에 병원에서 처방하던 약품을 일반약국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런데 작년에 환자수가 목표했던 것보다 무려 1만 3,000명이 늘어났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만 3,000명이 실적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자료에. 그러면 올해에도 적어도 이게 20% 이상의 외래환자가 늘어났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이 외래환자가 5% 내지 10%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20%가 늘어났거든요, 작년 같은 의약분업사태에도 불구하고.

○院長 金權宇; 진료실적은 외래환자는 29만 5,000명에서 실적은 29만 8,184명으로 1.1% 정도 늘었습니다, 총 외래환자는 6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高明坤 委員; 의료보호환자 있죠, 7페이지에.

○院長 金權宇; 7페이지의 의료보호환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의해서 한시적 의료보호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점입니다.

○高明坤 委員; 그러면 의료외래수익이 올해목표가 139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타 의업수익이라고 그래서 21억 6,000

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추정손익계산서에 보면 15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院長 金權宇;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高明坤 委員; 위원들한테 배포한 예산서가 있던데.

○院長 金權宇; 사실은 의약분업에 의해서 의료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래환자가 늘다하더라도 우리가 매출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처방료만 우리가 접수하기 때문에 기타 약품매출 같은 것은 약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약품매출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院長 金權宇; 네, 숫자는 늘어도 그렇습니다.

○高明坤 委員; 8페이지에 가서.....

○院長 金權宇; 예산서입니까?

○高明坤 委員; 아니, 업무보고 8페이지에 가서 5번에 진료연계사업 중에서 산업체 지정진료계약이 20개소가 되어 있어서 진료실적이 9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외래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리츠칼튼이나 코엑스나 18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院長 金權宇;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우리병원의 홍보물을 가지고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전략에 의해서 했고, 특히 리츠칼튼호텔이라든지 롯데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롯데호텔 같은 데서는 외국인 환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저희병원에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하고, 특히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채

용신체검사라든지 직원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적극 협조해서 치료해 주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高明坤 委員; 지금 이런 부분은 시 산하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산업체지정진료계약을 많이 늘려서 강남병원이 수익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院長 金權宇; 감사합니다.

○高明坤 委員;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오늘 자료에 보니까 강남병원이 현재 병원네트워크 구축이 사실상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느낍니다.

또한 강남병원이 갖고 있는 장비나 신규도입장비가 26억 정도 투자할 것 같으면 상당히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을 많이 교체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의료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초고속 구축이나 기반조성을 작년 에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직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강남병원 에?

○院長 金權宇; 강남병원의 전산은 일부 병원 내의 문제를 관리하는 전산과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라든지 또 기술 제공 같은 것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러면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라면 병원의 전산팀에서 적어도 계획을, 병원의 의사 분들의 진료도 중요하지만 정보체계를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받고 환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부분도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院長 金權宇; 그것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러면 병원 전산팀에서는 단순한.....

○院長 金權宇; 단순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남병원과 같이 500병상을 가진 그런 대형병원 같으면 전산시스템을 사실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외부를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네트워크 구축이나 시스템개발계획 같은 것을 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해 나가도 이게 환자의 수요나 의료정보서비스 수요에 모자란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이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상서비스가 도입이 되었다는 것이 저도 의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음에 이 부분에 지금 현재의 전산팀에 어느 정도 직급이 되는 분이 전산팀을 맡고 계십니까?

○院長 金權宇; 계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원장님, 500베드 정도 되면 현재 전산경력이 적어도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병원업무를 주로 많이 한 이런 10년 이상 된 사람이 2.3명이 직원수도 5명 정도 이상이 전산업무에 매달려도 상당히 업무의 과부하를 느낄 정도로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계장 정도의 경력한 4.5년 정도 된 사람들이 이러한 거대한 전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원장님 이 전산 부분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院長 金權宇; 저희 직원들은 처음에는 사실은 전산부서를 따로 떼어서 전산을 했었는데 하드웨어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전산이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가

지고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아무리 따라잡아도 오히려 미흡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전산업체와 연계해서 하드웨어도 전부 외주를 주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 같은 것도 저희가 연계해서 받으면서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것은 물론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합니다만 그런 노하우를 전부 외주를 줌으로 해서 사실은 오히려 다른 500병상 이상의 병원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앞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高明坤 委員; 제가 볼 때는 팩스시스템이 정보도입 자체가 2002년도에 있는데 현재 국내 500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이 정도의 전산시스템은 벌써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전산시스템을 두 가지로 보시는 것 같아요. 화상 쪽과 이쪽을 두 가지로 보시는 것 같은데 화상 쪽은 기본적으로 전송망, 소위 네트워크 구축이 기본적으로 병원에 완료가 되어 있어야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데 아마 이중으로 별도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院長 金權宇;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에 광케이블을 이미 설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팩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연계하면 되는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현재 우리 서울시 산하 병원 중에서 보라매병원이 전산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제가 다른 병원들도 죽 봤습니다만, 다른 병원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병원들이 팩스시스템이 벌써 완료가 되어서 이제는 서울대병원 본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서울대병원의 본원과 보라매병원의 소프트웨어를 공유해야 소위 OS체계를 공유해야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500병상을 가진 소위 중형급 병원이면서 이런 전산분야가 전혀 아직 이제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전반분야에 장비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투자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장급 정도의 직원이 강남병원의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院長 金權宇; 예를 드신 보라매병원하고 저희들의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이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병원이라는 모 병원이 있고, 또 서울시와의 계약협약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의 전산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지방공사로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보조받지 않고 이런 외주시스템을 이용해서 오히려 팩스시스템 같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삼성이나 현대, 중앙, 이런 데서 팩스시스템을 저희도 언젠가는 도입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화상의 해상도가 떨어지고 해서 지금 그것이 만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팩스시스템 같은 것도 기계발달에 따라서 다른 데보다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광케이블을 통한 병원 내의 초고속 광케이블을 설치할 하고 해서 조금 늦게

시작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보라매병원 하고는 조금 시스템이 다르겠습니다.

○高明坤 委員; 강남병원의 집행간부 중에서 현재 전산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계장 이외 관장하시는 분이 아마 총무부장님께서 관장하실 것으로 보는데.....

○院長 金權宇; 기획업무부장이.

○高明坤 委員; 이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무자가 중요하지만 병원의 전산화를 이끌고 나가는 플랜을 세우는 데는 사실상 부장급 내지는 과장급의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병원의 전산에 500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의 전산계장이 없습니다, 서울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강남병원이 장비를 26억씩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통신인프라 전산인프라가 완비되지 않고서 이런 장비들은 자칫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전산분야의 직원을 보완하십시오. 이것은 전산직원의 보완은 의사의 역할도 병원에서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산서비스가 닥터들의 사실은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 분야에 투자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21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전산인프라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 화상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 말입니다.

저는 이게 아이러니해서 이 부분에 추진계획이나 그 동안에 있었던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연유로 해서 이 사업이 시

작되어서 아까 말씀으로는 작년에 한 환자가 이것을 통해서 소득을 봤다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정도의 투자가 되었고 이러한 화상네트워크를 추진할 시점에 과연 적절한 투자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院長 金權宇; 이것은 second opinion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투자한 것이 아니고 미국 쪽하고 여기, 이것은 저희 예산이 든 것은 아닙니다.

○高明坤 委員; 그런데 추진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院長 金權宇; 일단 저희병원에도 상당히 단골환자들이 많고 이런 정도의 난치병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국내 의견만이 아니고 외국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소위 외국을 방문해서 치료하고 진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수수료만 내고 우리 의료진과 미국의 우수한 병원의 전문가들끼리 의견을 교환해서 상담하고, 진찰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객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나라 환자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러면 이 장비는.....

○院長 金權宇;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企劃院務部長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高明坤 委員; 네, 말씀하세요.

○企劃院務部長 朴世雄; 企劃院務部長 朴世雄입니다.

이 원격화상진료센터는 저희 병원에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소마코리아라는 회사가 화상 송출시스템을 전문으로 하

는 회사인데 우리 나라의 공공병원으로서 외국의 우수한 병원과 화상 송출시스템을 강남병원에 설치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염가로 그런 서비스이용료를 내고 서비스 하도록 기술적인 회사의 지원을 얻어서 시스템을 그 회사가 설치했습니다.

○高明坤 委員; 작년에 이 화상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소마코리아에 지출한 비용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장비를 통해서 수익은 얼마나 됐습니까?

○企劃院務部長 朴世雄; 그 화상송출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작년 12월에 완결돼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가 이용할 때, 아직 그 협정요금은 협의중에 있는데 외국과 화상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 화상서비스 요금을 그 회사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병원의 진단과 모든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진단자료를 화상을 통해서 외국병원 의사와 UCLA, UC-DAVIS 병원과 진료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 나왔을 때 수수료를 그 회사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작년에 한 분이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면서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院長 金權宇; 그것은 내과의 간질환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을 환자가 직접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 화상은 저쪽에 우리가 second opinion만 구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온 교포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치료받다가 저희 병원에 소위 의뢰하는 환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당초 계획이 늦어진 것이 IMF 이후에 이런

송출회사들의 경영상태도 좀 나빠졌고 또한 저희가 장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저쪽하고 접속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장비들이 아날로그가 돼서 송출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 기술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러면 원장님, 소마코리아가 이 second opinion을 해 줬다고 하는데 현재 강남병원에서 화상네트워크 장비로 인해서 지출이나 수입에 대한 금액이 한 건도 없습니까? ○院長 金權宇; 없습니다.

○高明坤 委員; 지출된 금액도 없고요?

○院長 金權宇; 네.

○高明坤 委員; 그러면 소마코리아가 이것을 했을 때는 국내에서 소마코리아 제품을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더구나 IMF 기간 중에 강남병원에서 전산 투자를 조금 늦춰가면서 이런 화상네트워크를 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이것을 서둘렀습니까?

○院長 金權宇; 환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高明坤 委員; 지금 강남병원에 오는 환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중앙병원이나 삼성병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병원에 오는 환자보다는 의료보호환자나 중산층 이하의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도 환자분들이 이런 외국의 화상네트워크를 요구했다 이거죠?

○院長 金權宇; 네, 저희 병원의 일부 환자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소마코리아라는 회사가 민간병원으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연세대학병원하고 저희

병원하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러면 소마코리아를 통해서 앞으로 화상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얼마쯤 예상이 됩니까?

○院長 金權宇; 저희가 지출되는 병원비용은 없습니다.

○高明坤 委員; 하나도 없습니까? 환자가 100% 부담한다는 거죠?

○院長 金權宇; 네, 환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高明坤 委員; 그러면 올해 하반기쯤에 가서 이 네트워크가 완전히 개통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연간 몇 명 정도나 이것을 이용할 것 같습니까?

○院長 金權宇; 그것은 저희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高明坤 委員; 저는 강남병원에서 이런 전산 투자를 상당히 늦게 하면서 화상네트워크가 구축됐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院長 金權宇; 이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미국의 우수한 병원과 송출회사하고 여기에서 지금 전액 투자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전산계획과는 별도입니다.

○高明坤 委員; 원장님, 이 네트워크 구축의 장소는 강남병원이 장소를 빌려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院長 金權宇; 그렇습니다.

○高明坤 委員; 특히 강남병원의 기존 어떤 통신회선을 이용해서 했을 것이고 말이죠. 그렇다면 강남병원의 동의하에 이런 분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보다 더 선행 프로젝트가 있다면 현재 전산인프라를 확충하고 한 다음에 해야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院長 金權宇; 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국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 네트워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산이 된 다음에 이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은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高明坤 委員;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원의 시설물이나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院長 金權宇; 장소는 대여하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병원을 방문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강남병원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장소나 시설물을 투자했기 때문에.....

○院長 金權宇; 장소를.....

○高明坤 委員; 네, 장소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적어도 의료장비 현대화가 같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찾는 고객들이 와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럼 없이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장비가 현대화돼 있지 않은 데에서 이런 화상네트워크를 환자가 요구할 리는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도 현대화시키고 화상네트워크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원전산화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환자들의 서비스도 색다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고 좀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院長 金權宇; 저희 병원 전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도 그렇게 늦지가 않습니다.

87년부터 전산을 시작했고 소위 O.C.S도 공공병원으로서는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EDI시스템, 소위 전자청구제도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 병원이 앞서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재개발하는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高明坤 委員; 그런 시스템이 없는 병원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EDI도 있고 다 있는데요. 문제는 전산을 추진하는 플래닝 하시는 분이 적어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내업체들을 끌어들이고 해외업체들을 끌어들이면서 개발해 나갈 텐데 그런 플래닝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초고속 네트워크가 이제 구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병원전산화에서는 엄청 늦은거죠.

또 기존 O.C.S를 접목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00년도에 어느 병원이 이 정도의 시스템을 안 갖췄느냐 이거예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PACS도 마찬가지예요. 500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PACS도 이제 2002년도에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는지 오히려 시의회에,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 줘서 청구서비스를 높여줘야 되는 게 병원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인력도 수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추진하는 플래닝하는 사람이 수업이 안 돼 있다면 적어도 간부 중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도 안 계시고 계장 한 분이 이것을 하고 있다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병원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제는 닥터의 어떤 진료로만 병원이 평가되는 게 아니고 전산인프라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병원의 품질을 높이는 평가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색다른 시각으로 투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院長 金權宇;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高明坤 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李順子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李順子 委員; 李順子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이게 이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으로 발전적인 그런 강남병원의 업무상황이 될 것 같아서 꼭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업무보고와 조금 다소 동떨어질지 모르지만 현 우리 사회에서 몇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의약분업사태 이후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지만 병원과 제약회사, 또 제약을 취급하는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밀약이나 또는 동업관계가 더 활발하게 물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의 얘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남병원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그 병원이 처방한 약품이 반드시 병원 앞에 있는 약방에서만 살 수있는 것을 본인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강남병원에 속한 약방은 몇 개나 되는지. 이것은 사

실 우문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강남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강남병원 앞이 아닌 다른 어느 제3의 지역에서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강남병원에 속해 있는 약방을 두고 있는지 있으면 대략 몇 군데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의사들이 일부 특정약품,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자기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특정약품만을 처방해서 약방에서 기이 구입해 왔던 약을 처리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지.

그 다음에 같은 효과의 약이라도 비싼약을 처방해서 환자에게는 부담을 주고 의사나 또는 약을 취급하는 업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그런 해피망측한 일은 강남병원에서는 전혀 없는지.

이것을 연초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서 연말에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업무계획이 잘 진행되었는가를 검토할 때 다시 묻고자 합니다.

1년 동안에 만의 하나라도 제가 묻는 이런 세 가지의 불상사가 강남병원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 金權宇; 의원님 질문에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생기면서 의약분업의 정신이 환자에게 불편을 가중시켜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갑작스럽게 시작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저희가

처방한 약들을 일반약국에서 소화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저희는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병원문전에 있는 약국, 그 다음에 병원 한 10km 정도 안에 있는 근방의 인근사람들이 저희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거주지, 많이 이용한다 하면 인근에 있는 거점약국, 그 다음에 서울시내 전역 집 앞에 있는 단골약국,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보니까 문전약국 아니면 우리가 의약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해도 특히 집 앞에 있는 단골약국이나 거점약국, 소위 한 10km 이내의 문전약국을 떠난 데에서는 상당히 처방이 다시 반송되고 그래서 환자가 불편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의약유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전약국들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문전약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전약국에서 어떤 처방에 잘못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피드백해서 지금 저희 병원 앞에는 문전약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약분업이 점차 정착화 되어 가면서 문전약국이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한 90% 이상이 문전약국 네 군데에서 소화하던 것이 지금은 한 60% 정도 자꾸 이제 바깥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또 의사들이 낸 처방도 잘 소화되어서 몰라서 반송되고 하는 것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약국과 담합한다든가 이런 사실은 제가 책임지고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의사들이 특정약품, 소위 고가약품을 써서 그 처방에 따른 마스크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논란이 되어온 유착관계, 리베

이트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 역시 결론적으로 제 책임으로써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 한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분별로 약품을 우리가 입찰을 봐서 들여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가 정책상 성분별로 했는데 이제는 성분이 소위 같은 성분이라도 국내 중소 영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품들은 저희가 사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주 우수한 약품의 제약회사의 약품을 의료계 전체에서 지금 처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를 확보하고 있고 하지만 다른 병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나 여러 사정기관에서 많은 조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 저희병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지적된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院長 金權宇; 지적된 바 없고 지적될 소지도 없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 다음에 비싼 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은 약효에 똑같은 약효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혈압 약을 먹는데 같은, 글썄 그것은 의약적으로 똑같은 효과라고 그래서 이 의사는 A라는 약을 주는데 그 혈압에 관해서 B라는 의사는 또 C라는 약을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먹는 환자는 혈압에 관해서 먹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인센티브가 의사한테 간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院長 金權宇; 없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러면 약의 값과 질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院長 金權宇; 약의 질에 대해서.....

○李順子 委員; 약이 비싸다고 질이 좋고 그 환자에 맞는 겁니까?

○院長 金權宇; 혈압만 해도 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꼭 혈압을 똑같이, 또 저도 혈압이 높습니다만 어떤 약은 아주 좋은 약인데도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가 혈압을 전공하는 심장내과 의사가 따로 약을 제 체질에 맞는 것을.....

○李順子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호르몬제를 먹는다, 골다공증 때문에 호르몬제를 먹는데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 자기 동네까지 왔다 말이에요.

와서 약방에 제시하니까 그 약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약을 사기 위해서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병원 앞으로 가면 있겠지 하고 가면 그 병원 앞에는 약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강남병원은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院長 金權宇; 이것은 의약분업의 정착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전약국에서부터 차차 이게 확산이 되어서 그런 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것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李順子 委員;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병원에서 내는 처방전의 약이 문전약국에서는 쉽게 구하는데 그것이 강동이나 송파지역의 어느 큰 약방에 갔을 때 조제한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왜냐 하면 약방이 수천만 가지 약을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약방이 재고가 쌓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의약분업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를 불편하게 해서 병원을 덜 가게 한다, 그 취지가 그렇다면 의사로서 그 취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자를 불편하게 해서 병원을 덜 가게 한다, 그래서.....

○院長 金權宇; 그 문제 제기 때문에 전공의 과업이 일어났고 의사들의 과업이 일어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공공병원에 있는 의사는 그 홍역을 많이 치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順子 委員; 글썄, 그 문제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를 받아낸 것이 있습니까?

○院長 金權宇; 아직은 의약분업에 대한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李順子 委員; 제가 참 질문하기가 너무나 뻑뻑하고 답답한 질문이었는데 연초에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의사와 약사, 병원과 제약회사의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2개월 지나서 10달이라는 1년의 과정이 남았는데 그 1년 동안 어느 날 강남병원이 터져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마시라고 경고성 있는 제가 질문을 해 드리니까 1년 내내 무사하게 임무에 종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院長 金權宇;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姜榮元委員님 질문해 주십시오.

○姜榮元 委員; 姜榮元委員입니다.

병원장님 그리고 우리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전부

제가 아주 교통대란 때문에 많이 기다리게 해 가지고 굉장히 죄송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오늘은 사실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院長 金權宇; 감사합니다.

○姜榮元 委員; 일단은 2001년도에 들어서서 처음 시작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방향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공익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저고 존립기반이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수익성에서 2000년대에 80억 적자인데 2001년도에는 수입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院長 金權宇; 2001년도에는 소위 경상수지비율을 2000년도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80% 정도에 머물렀지만 94% 정도로 올릴 예정입니다.

○姜榮元 委員; 그래서 손익관계가 얼마 정도 적자를 볼 것 같습니까?

○院長 金權宇; 저희가 보기에 매년 평균적으로 한 30억 적자가 납니다. 그러나 올해는 30억 이내로 그보다 훨씬 더.....

○姜榮元 委員; 지금 목표치가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院長 金權宇; 목표치는 24.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姜榮元 委員; 24억 내지는 25억요?

○院長 金權宇; 네.

○姜榮元 委員; 우리 高明坤委員님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봤고 저도 전산시스템이나 인프라에 관해서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굉장히

히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아서 다시 제기할 문제이고, 일단 강남병원이 시립병원이지만 보라매병원하고 똑같이 기본적인 의사 분들이 어떤 진료시설이나 희귀병 외에는 실력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해요.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의약분업도 이제 어느 정도 종료되었고 이런 상태라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재정자립도가 94%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94%까지는 사실은 안돼요.

우리가 투자된 기본적인 고정자산은 다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서 공사답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죽 읽어보면서 高明坤委員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굉장히 경영적인 방법하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까 언뜻 보니까 병원장님 경영적인 공부를 좀 하시고 계십니까, 경영이나 경제에 관한 공부를?

○院長 金權宇;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원장 되고 나서는 부득이 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있습니까만 위원님한테는 미치지를 못하는 정도입니다.

○姜榮元 委員;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느 분이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院長 金權宇; 기획업무부에서요.

○姜榮元 委員; 그렇습니까?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 접근된 것이 흥겹고, 그 다음에 특히 13페이지부터 경영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해서 진료사업 내실화부터 마케팅 문제, 물류 관리시스템, 물론 문제가 제가 볼 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굉장히 외형은 잘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문제는 좀 3월 정도 되었을 때 좀더 깊이 있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거기서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전산시스템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 및 그리고 현재 아까 계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院長 金權宇; 네.

○姜榮元 委員; 인적사항, 장비현황, 효과 등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서류로써 우리 보사위원회에 보내 주시고요. 관리하시는 계장님은 전공이 뭡니까, 전산에 관계하신다는 계장님?

○院長 金權宇; 전산전문가입니다.

○姜榮元 委員; 몇 년이나 그 업종에.....

○院長 金權宇; 한 15년 정도. 저희 병원이 코볼을 가지고 전산을 시작할 때 들어 왔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러면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만큼 맡을 만한 직능은 있다는 얘기인가요?

○院長 金權宇; 네.

○姜榮元 委員;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에 의뢰할 때하고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관리할 때의 장단점도 한번 대처해 주세요.

○院長 金權宇; 네.

○姜榮元 委員; 그리고 제가 특히 아까 24페이지, 3.3.3실천운동 전개 같은 것 있지요. 이게 굉장히 아주 경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아까 경영합리화에서 물류관리시스템 혁신이니 의료정보 활성화 뭐 등등 있지요.

그 다음에 의료수익 증대 노력 등등 가장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바로 이런 3.3.3 실천운동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들이 그만큼 친절 교육이나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정신무장을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페이지요.

수익성에 있어서 아까 부대수익에서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수익을 적극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나 했는데 나중에 죽 놓고 보니까 격조높은 뭐 화장, 장례식장 운영문제도 나왔고, 사실 여기서 들어오는 부대수익도 우리가 무시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장문화선도라고 했는데 지금 화장문화에 있어서 목관을 가지고 쓰나요, 종이관을 쓰시나요?

○院長 金權宇; 지금 목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관도, 지금 저희가 알아 보니까 한 6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관도 납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래서 제가 이 목관하고 지관에 관계되는 문제를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고 제 자신이 장묘문화쪽에 관계가 있어 가지고 유심히 살펴봤었는데 목관사용과 지관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목관이 조금 문제점이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병원측 자체에서 한번 장단점과 그 다음에 모든 자료, 그리고 현실화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비교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공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병원측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관보다 목관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중의 하나는 지관을 사용했을 때와 목관을 사용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고 우리 세금이 감소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영의 능률성이 더 있느냐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춰서 한번 뽑아주십시오.

○院長 金權宇; 네, 알겠습니다.

○姜榮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네, 高明坤委員님 하세요.

○高明坤 委員;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 원격 화상의료서비스의 추진계획 세웠던 것하고요. 소마코리아하교의 계약내용, 그 다음에 운영상 현재 드러난 문제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저한테 원격 화상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姜榮元委員이 얘기한 전산장비 중에서 한 가지 더 첨가해 주실 게 강남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아까 외주를 줬다는 그 내용 같은데요. 유지·보수의 계약내용을 3년간 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해서 같이 자료를 姜榮元委員 주시는 것에 첨부해서 저한테도 주십시오.

○院長 金權宇; 네, 알겠습니다.

○姜榮元 委員; 지금 高明坤委員님 말씀하신 것 있죠? 그게 아까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달라는 그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주시면 될 겁니다.

○院長 金權宇;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금년도 강남병원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칠 것입니다.

저희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대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시 30분까지 모든 상임위원회의 진행을 전부 마쳤습니다. 저희가 1시간을 더 한 것인데 이 점 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만약에 오늘 중단했다면 다음 날 또 하루를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대신 저는 조금 문책을 받을 겁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관업무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기대효과와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保健社會委員會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월 16일 오후 2시에는 保健福祉局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30分 散會)

李喆鎬 高明坤 李政恩 李英順

崔鍾午 洪承采 金種求 閔鍊植

李禮子 李順子 姜榮元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江南病院

院長 金權宇

企劃院務部長 朴世雄